

세계화 넘어 국제표준화 바라보는 자국어인터넷주소

넷피아는 자국어인터넷주소 개발을 통해, 전 세계 인류의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자국어 인터넷주소는 세계 95개국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주요 국제 회의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화를 넘어 국제표준화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이에 지난 해 유럽지역부터 아시아, 남미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산하며 이뤄낸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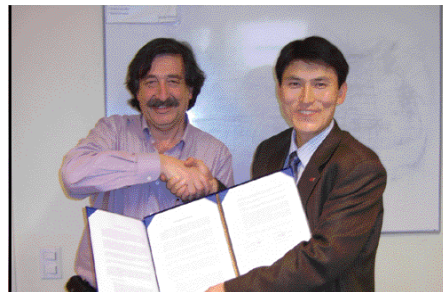


↑ 넷피아 본사를 방문해 자국어인터넷주소를 시인하며 경탄하는 태국 왕실의 마하 짜끄리 씨린틴 공주

세계 최초로 자국어인터넷주소를 개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넷피아는 세계 여러 민족이 모여 있어 사용하는 언어도 각각 다른 유럽지역에서부터 자국어인터넷주소 보급에 활기를 띠고 있다.

불가리아부터 남미대륙까지, 본격적인 세계시장 공략나서

지난해 초 불가리아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과 함께 불가리아 대학 및 각급 학교 네트워크에 자국어인터넷주소 솔루션을 보급함으로써 자국어인터넷주소 이용의 시험적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힘입어 지난 연말 불가리아에 자국어인터넷주소 인터넷프라이자 개관식에서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상용화에 청신호를 밝혔다.



↑ 자국어인터넷주소 보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남미 최대 ISP 임원들과 넷피아 이판정 대표이사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략은 지난해 상반기 말레이시아의 주요 ISP와 자국어인터넷주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나 지난 10월에는 차기여왕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태국 왕실의 마하 짜끄리 씨린틴 공주가 자국어인터넷주소 솔루션과 NLIA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넷피아 본사를 방문, 국제 협력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2004년 11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ABC(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3개국 방문에 맞춰 남미 최대 ISP(인터넷 통신사업자)사와 함께 전 세계 95개국 자국어인터넷주소 서비스 보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IT 원천기술인 자국



↑ 자국어인터넷주소를 시인하고 있는 불가리아 교통통신부 관계자와 넷피아 노은천 상무

어인터넷주소가 남미대륙에 보급되는 첫 사례로서, 남미 주요 국가와의 IT 외교에 길이 남을 큰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렇게 본격적인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 자국어인터넷주소는 APAN(Asia-Pacific Advanced Network),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많은 국제회의에서 발표되었고, UN의 공식 초청을 받아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WSSIS)에서도 발표 되는 등 제3세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ITU-T(세계통신표준총회)에서 표준화 제의 받아

2004년 10월 브라질 플라리아노폴리스에서 개최된 ITU-T 세계통신표준총회(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에 공식이슈로 선정, 발표된 넷피아 자국어인터넷주소는 세계 전기통신분야 정책 개발 전문가 및 IT 전문가들에게 큰 호응과 함께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ITU-T 의장 Mr. Houlin Zhao와 COM 4의 위원장 Mr. Richard Hill로부터 자국어인터넷주소를 ITU의 표준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 ITU의 표준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지난 7년간 넷피아가 꾸준히 국제 활동에 투자한 결과로서 자국어인터넷주소에 대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ITU가 보여준 자국어인터넷주소 표준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자국어인터넷주소 모델 국가로서 국내 원천기술로 세계 신 산업의 표준을 탄생시키는 첫 사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넷피아 임원 UN WGIG 위원으로 선임

2004년 11월 넷피아의 임원이 한국을 대표해 UN WGIG(인터넷정책

위원회: 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의 위원이 되는 영예를 안게 된 만큼 세계 표준화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2003년 12월 제1단계 WSSIS(정보화 사회를 위한 국제정상회의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가 채택한 원칙선언과 실행계획에 근거해 지역적 안배, 정부·기업·시민단체 간의 분과별 안배 등을 거쳐 구성된 WGIG는 Internet Governance에 관한 정의를 확립하고, 본 정의에 의거해 국가간 전자상거래, 국제 사이버 범죄 해결, 인터넷주소 분배방안 등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도출,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WGIG 위원에 선임된 넷피아 임원은 “자국어인터넷주소 자원관리에 대한 미국과 중국

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자국어인터넷주소를 차세대 인터넷주소로 제시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양대 진영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3의 타협안이 될 수 있고, 또 인류에게 보다 편리한 인터넷주소 서비스를 한국이 제공했다는 역사적 의의 및 경제적 실리까지 챙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성공적 활용과 세계시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글로벌화를 넘어 표준화에 성큼 다가섰다. 또한 제2세대 인터넷주소인 영문도메인보다 한 차원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해주는 제3세대 인터넷주소로서 인터넷 시장 변화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

